

제 112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일본의 호랑이 문화’

(최 경국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주임교수)

동물과 관련된 설화나 이야기는 어느 나라나 존재하며 이리와 일곱 마리의 어린 산양, 헛님 달님, 하느님의 쇠줄 등 서로 비슷한 이야기도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기록한 호랑이 기록은 일본서기 킨메이키 545년 3월의 기사에 하룻밤을 묵었을 때 어린애가 사라진 것의 괴이하게 여겨 원인을 찾던 중 호랑이를 발견하고 덤벼들 의 틈을 이용해 왼손으로 허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찔러 죽이고 껍질을 벗겨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랑이 퇴치는 용감무쌍의 상징으로 여겨져 호랑이 퇴치를 한 장군의 무용담이 간간히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칼이나 총포등으로 호랑이를 제압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도 많이 그려졌다. 무용담의 대표적인 예로 전국시대의 무장 가토 기요마사의 호랑이 퇴치담이 있다. 조일전쟁 때 조선에서 전쟁을 수행하던 시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호랑이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또한 이 이야기는 에도시대 말기에 크게 유행한다. 호랑이를 창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림으로 인해 그의 무용은 널리 전해졌으리라 생각한다.

에도말기에서 메이지초기에는 수많은 호랑이 퇴치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약점에도 많이 그려진 것은 당시 국수주의 시기에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 후 일제강점시기 일본의 무장들은 자신의 무용을 드러내고자 조선으로 가서 호랑이 퇴치에 열중했다. 약 10년간 포획작전이 전개되었는데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인의 호랑이 퇴치는 단순히 무용담 뿐만 아니라 그 포획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인 호피에도 열광하였다. 호피는 왕권과 귀족들에 의해 강력한 주술성을 가진 물건으로 사용되었으며 호신과 치병의 주술적 기능은 물론 무구로서 호랑이와 동일시하여 호랑이와 같은 강함을 나타내려는 심리로 인해 많은 인기를 누렸다.